

다산포럼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라고 지시하며,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소득 주도 성장'이란 목표 아래, 2018년과 2019년에 최저임금을 꽤 올려 준 것도 옳은 정책이었다. 그러나 지속하지 못한 채 코로나19 이전부터 노동 정책은 일관성을 잃고 후퇴하였다.

'요소가격(要素價格) 균등화 정리'에 의하면 자유무역하에서 수출국 A와 수입국 B의 임금 수준은 점차 격차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같아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수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미국이나 독일 등의 제조업 노동자들과 비슷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면서 비슷한 임금을 받게 되어야 마땅하다. 내수 산업 종사자는 수출 산업 노동자 수준에 맞게 점차 따라가야 한다.

노동 현실은 그러나 자본주의 교과서 이론과 달리 한

과잉 착취와 노동자의 고통

국 노동자들에게 매우 불리하다. 자유무역의 혜택은 반도체 등 주요 수출 산업의 자본가들에게 대부분 돌아갔다. 삼성전자는 10조 원에 달하는 특별배당금까지 준다는데, 그것은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세습 총수 일가와 삼성물산·삼성생명 등 계열사, 그리고 55%를 넘는 주식을 소유한 외국 자본에 대부분 돌아갈 것이다. 고졸 여성이 대부분인 반도체 노동자들은 앞으로 미국의 반도체 노동자들보다 훨씬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면서 낮은 봉급을 받을 것이다.

어느 나라의 노동자든 1) 정규직으로, 2) 여성이라고, 3) 대졸이 아니라고, 4) 중소기업이나 하도급 기업에 근무한다고 차별받지 않고, 5) 불법 해고 없이, 6)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7) 노동시간은 길지 않고, 8) 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을 받기를 원한다. 한국 노동자들만 욕심이 많아 모든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영국이나 미국의 노동자들은 한국보다 훨씬 낫다.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스웨덴 등 북유럽과 독일의 노동자들은 영미보다도 오히려 더 나은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

한국의 노동 현실은 어떤가? 미국은 물론 이태리·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에 비해서도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착취가 심하다. 1) 비정규직 비중이 아주 높으며, 2) 여성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남성에 비해 매우 낮고, 3) 학력별 임금 격차, 4)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매우 크다. 5) 부산·서울 도보 투쟁 중인 김진숙

씨의 경우처럼 불법 해고에 대항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6)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국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는 OECD 1위를 지킬 것이다. 7) 연간 노동시간도 멕시코와 함께 1위를 계속 다룰 것이다. '주 52시간 노동제'가 올해 중소기업에까지 확대 적용되는데도 그렇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8) 동일 가치 노동에 임금 차별은 매우 장수할 것이다.

물론 북유럽 국가에도 노동 착취는 존재한다. 그러나 1)부터 8)까지의 악성 착취는 없거나 한국보다 매우 작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복구나 독일과 비교해 여덟 겹으로 더 쥐어짜이고 있다. 필자는 이를 '과잉 착취'라고 이름 짓겠다. 우리 노동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극심하다. 삼성전자의 노동자들에게조차 노동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데, 다른 기업들의 노동자 사정은 얼마나 딱하겠는가?

촛불 혁명 덕분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조차, 표를 몰아준 노동자들을 경시한다. 바이든이나 트럼프보다도 주권자에 대한 의리가 없다. 이를 어찌할 것인가? 21대 국회에서 노동자와 가족들이 여당에 압도적 다수를 밀어 준 만큼, 30년을 미뤄 온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만은 국회에서 비준하도록 해야 한다. '자본의 힘'보다 '단결된 사람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입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보여 주어야 한다. 전태일 열사와 이소선 여사가 지켜보고 있다.

기고



손병일
전남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팀장·사회복지학 박사

사회복지는 2000년대 이전까지 사회보장 제도에 의해 양적 성장을 이뤘다. 이후 사회보험 제도 완비와 공공부조 제도 확충으로 기본 틀을 갖췄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신중년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면서 '민간 주도 지역민 참여'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 필요해졌다. 즉 사회적 위험 요소를 해결하는 사회안전망과 저성장 시대 일자리 창출 등 대안적인 성장 동력을 지닌 정책 집행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사회보장 정책 중 하나가 사회서비스이다.

사회서비스는 국가·지자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 의료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이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자 이용권인 바우처(Voucher)를 발급해 주고 이용자는 제공 기관을 선택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권으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흔히들 사회복지서비스를 바우처 사업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전남 행복 시대' 사회서비스 사업의 잠재력

현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이라는 국정 과제를 채택하여 일자리 창출 정책 5개년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조사된 정부 부처별 사회서비스 현황을 보면 20개 부처에서 240개 사업, 35조 6520억 원 규모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2018년 2월 사회보장위원회는 관계 부처 합동 회의를 통해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을 수립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시행하는 주요 사회서비스 사업에는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8개 사업이 있다. 특히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국가 주도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직접 기획·시행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이다.

지난해 전남도에서는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도서 노인 해피라이프 서비스'와 '판소리 건강 100세 취업세' 등 30개 사업이 추진됐다. 지역 주민 1만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3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남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이용자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점에서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 이 발표한 '사회서비스 산업의 국제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는 "사회서비스의 경우 부가가치 효과 파급을 통한 경기부양과 경제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노동부 조사에서도 '독거노인 건강 서비스'와 '지역 사회서비스'가 미래에

고용 변화가 예상되는 상위 직종으로 꼽혔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업' 인력 수요 보고서에서도 취업자 수의 증가가 가장 뚜렷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 분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지목하면서, 2018년 2018년 6000명에서 2028년 267만 1000명으로 62만 4000명(연평균 2.7%)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는 꾸준히 성장해 왔고 미래에도 반드시 필요한 국가 정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공급·이용 체계의 공공성 및 통합성 부족 등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을 각 사도에 설치하여 공공 인프라 확충, 생애 주기별 공공 서비스 확대, 전달 체계의 보강 등 사회서비스를 국민 체감형으로 개편하고 있다.

전남도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을 열고 지역 중심 밀착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 전남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수급 실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서비스 제공자의 확률은 대학 졸업 이상이 76%를 달하며, 이용자들이 공공 서비스의 전문성에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이용자들이 느끼는 서비스 품질과 이용 만족도도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전남 지역 사회서비스는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공급·이용 체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각 시군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서비스 제공 기관 또한 서비스 품질 향상과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이용자의 선택권 및 책임성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고

응급구조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김태현
전남도소방본부 항공구조구급대 응급구조사

지난 2008년 동강대학교 응급구조과에 입학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 현재는 전남도소방본부 항공구조구급대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모교에서 후배들을 지도하는 일도 병행하고 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대학 입학부터 졸업, 취업 등으로 고민했던 이십대 시절이 생각난다. 가뜰이나 취업난이 심각한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젊은이들의 일자리 찾기 는 더욱 험난해졌다.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13년 전 응급구조과에 지원한 뒤 선택의 동기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단지 직업이나 직장이 필요해 응급구조사를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응급구조사에 대한 직업의식이 있었어서였나? 한때 대학 새내기 신분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할 수가 없었다.

지금 다시 스무 살 시절로 돌아간다면 보다 확고한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대학 생활에 임할 것이다. 당시 강의를 들으며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물이켜 생각해 보면 그 행동은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라 단지 학점이나 자격증을 따기 위함이었다던 같다.

그러던 중 어느 교수님의 강의 내용이 목표 없이 학업에만 집중하던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 교수님은 '응급구조사는 고귀하고 숭고한 직업'이라고 강조하셨다. 응급구조사는 사고 현장에서 누구보다 환자를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며, 병원에서 이송하면서 구급차 내에서 끝낸 타임을 지키기 위해 응급 처치를 한다. 또한 병원에 도착하면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수님의 말씀은 내 스스로 '의학적 지식과 부단한 연습을 통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자'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모티브가 되었다. 목표가 뚜렷해지자 학업에 흥미가 생겼고 공부도 더욱 재미있어졌다. 이론과 실습을 통해 완벽한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를 지킬 수 없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해 어떤 변명으로도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없

을 것 같았다. 때 순간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하며 성장하려고 노력 중이다.

졸업 후 병원에서 일했고 현재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산발 진화, 응급 처치,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항공구조구급대에서 근무하다 보면 산악 구조, 수난 구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육과 훈련을 통해 반복적인 숙달이 필요하고 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힘든 상황에 직면하거나 체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는 도움의 손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스스로 새롭게 다짐을 하고 위기를 이겨내려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내 도움을 필요로 했던 환자로부터 감사의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는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데 대해 자부심까지 느낀다. 입학·졸업 시즌을 앞두고 인생의 갈림길이 되어주신 교수님께 뒤늦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응급구조사의 꿈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학과 후배들에게도 선배로서, 또 미래의 동료로서, 한마디 해주고 싶다. "후배 여러분! 여러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힘찬 격려와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혹시라도 선배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끝낸 타임'을 놓치지 않고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社說

행정 명령 비웃는 '꼼수 예배' 적극 단속해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교회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자 광주시는 최근 모든 교회의 대면 예배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일부 교회들은 각종 꼼수를 동원하면서까지 대면 예배를 강행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엇그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교회 관련 추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광주시 내 모든 교회에 대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광주시가 행정명령 카드까지 꺼낸 것은 지난해 광주에서 교회 관련 확진자가 200명 이상 발생했고, 이들 중 병원·유치원·학교·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n차 감염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일보 취재 팀이 휴일인 지난 31일 일부 교회를 확인한 결과 20인 미만의 신도가 모여 목사의 설교를 듣는 등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는 대면 예배 금지 시 온라인

예배를 위한 영상 제작 및 송출 인력에 한해 20명 미만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역 지침을 사실상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2월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계속해서 교회 관련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 최다 감염자를 기록한 IM선교회 산하 광주 TCS 국제학교 163명을 비롯해서 사랑제일교회 118명 등 어제 오후 6시 현재 교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627명으로, 광주 시내 전체 누적 확진자(1824명)의 34%에 이른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계속하는 것은 지금 병원·유치원·학교·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n차 감염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일보 취재 팀이 휴일인 지난 31일 일부 교회를 확인한 결과 20인 미만의 신도가 모여 목사의 설교를 듣는 등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는 대면 예배 금지 시 온라인

나주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더 늘릴 수 없나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인재를 채용한 비율은 전체 신규 채용 인원의 17.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적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높은 부산(27.9%), 대구·경북(24.6%), 충북(25.5%) 혁신도시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게다가 나주 혁신도시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이 본격화한 2015년부터 지금까지 20% 선을 넘긴 적이 한 번도 없는 실정이다. 13개 기관의 지역 출신 비율은 2015년 13.9%(1996명 중 277명), 2016년 10.1%(2143명 중 216명), 2017년 15.4%(2668명 중 411명), 2018년 15.1%(3144명 중 474명)이었다. 2019년에는 전체 3174명 가운데 540명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면서 17.0%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지난해에는 17.9%로 제자리

걸음을 했다.

나주 혁신도시 기관 가운데 지난해 평균 채용 비율(17.9%)을 밑돈 기관은 한국전력공사(15.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3.0%), 한국농어촌공사(1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0%) 등 네 곳이었다. 이쯤 되면 '혁신도시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제도'가 무색할 정도다. 이 제도에 의한 지난해 의무 채용 비율은 24%였으나, 말만 의무사항일 뿐 시행령에 권고 수준으로 돼 있어 특별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보다 높여 이전 지역과 상생하면서 공동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북한 원자력 발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이 시끄럽다.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일이다.

당장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북한 원전 관련 자료가 문재인 정부의 1·2차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만들어졌다는 점을 들어 충격적 '이적 행위'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김종진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 주려 한 것이 아니냐"며 검찰의 추가 수사를 촉구했다. 여기

청와대는 북한에 원전을 지어 주려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뒤 김종진 위원장의 언급은 '북풍 공작' 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원전 건설 등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자체는 경수로 건설 등 과거에도 사용했던 카드인 만큼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그럼에도 여야가 '이적 행위'에서 '북풍 공작'까지

혹세무민

경에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섹범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혹세무민'이란 말은 '그릇된 말로 사람들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율해는 자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전투구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민초들께겐 북장 터질 노릇이지만 이럴수록 마음을 다잡고 세상을 바로 보는 지혜가 요구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